

재외동포의



June 2017



임금이 친히 거행하는 장엄한 국가 제사 ‘종묘제례’

‘효’를 국가 차원에서 실천... 민족공동체 유대감과 질서 형성 역할



5월 첫 주말인 7일 종묘에서 종묘제례가 봉행되고 있다(좌). 서울 종묘 영녕전 앞에서 종묘제례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종묘제례란 종묘에서 행하는 제향 의식으로, 조선 시대의 나라 제사 중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였기 때문에 종묘대제(宗廟大祭)라고도 한다. 종묘는 조선 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공신들의 신주를 모셔 놓은 사당으로, 사직과 더불어 국가의 근본을 상징하는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이다. 종묘 정전의 19개 신실에는 태조를 비롯한 왕과 왕비의 신주(49위)가 모셔져 있으며, 영녕전 16실에는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34위)를 봉안하고 있다.

종묘제례는 왕실에서 거행되는 장엄한 국가 제사이며, 임금이 친히 받드는 존엄한 길례였다. 유교 사회에서는 길례(吉禮)·흉례(凶禮)·군례(軍禮)·빈례(賓禮)·가례(家禮)의 다섯 의례(五禮) 중 길례인 제사를 으뜸으로 여겼으며, 이를 ‘효’ 실천의 근본으로 삼았다.

유교가 국가의 근본이념이었던 조선 시대에도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도로 여겨 제사를 특히 중시하였으며, 예로부터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번영시킨 왕과 왕실의 조상과 국가 발전에 공

헌한 문무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종묘제례는 크게 정시제(定時祭)와 임시제(臨時祭)로 나뉘며, 계절에 따라 햇과일이나 곡식을 올리는 천신제(薦新祭)도 있었다. 정시제는 봄·여름·가을·겨울의 첫 달인 1월·4월·7월·10월과 납일(臘日: 12월에 날을 잡아 지내는 설달제사)에 지냈으며, 임시제는 나라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냈다. 종묘제례는 해방 이후 한때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1969년부터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행사를 주관하여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하여 연주하는 기악과 노래·춤 말한다. 이는 조선 세종 때 궁중희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에 연원을 두고 있으며, 세조 10년(1464) 제례에 필요한 악곡이 첨가되면서 종묘제례악으로 정식 채택되었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6호와 제1호로 지정되어 보존·전승되고 있으며, 2001년 5월 18일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결정”으로 등재되었다. [창](#)



CONTENTS

2017. 06



- 02 한국의 얼 임금이 친히 거행하는 장엄한 국가 제사 ‘중묘제례’
‘효’를 국가 차원에서 실천... 민족공동체 유대감과 질서 형성 역할
- 04 특집 1 전 세계 한인 정치인 37명, 한반도 평화통일 기여 방안 모색
서울·제주서 열린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서 열띤 토론
- 06 특집 2 전 세계 주류사회로 약진하는 한인 정치인
김 메르겐·성영준·데이비드 민·이진영, “거주국-모국간 가교”
- 08 화제 1 文대통령, 4강외교 기본 틀 복원... ‘정상회담 준비’ 태세
“북핵·사드·위안부 현안 ‘예열’ 거쳐 정상회담으로 마무리 전략”
- 10 기획 대부분 올란바타르 거주해 서로 가까운 몽골 한인사회
동유럽 개방 후 선교사가 이민 개척... 양국 인적 교류 활발
- 12 유공동포 ‘몽골의 슈바이처’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상해임시정부에 자금 전하고 의열단에 폭탄제조자 소개
- 13 화제 2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포럼 뉴욕서 개최
- 14 글로벌 코리아 일본에 전통 한식 ‘음식디미방’ 보급하는 조선옥 씨
한국전 참전용사 지킴이, 전 한인회장 김승규 씨
태권도 사범 출신 명인 ‘탱고 홍보대사’ 공명규
- 16 동포소식 올 9월부터 佛 초·중·고교서 한국어 이중언어교육 실시 외
- 19 한민족 공감 동포 거상(巨商)들의 성공기 ‘한상 세계를 품다’ 출간 외
- 20 동포 캘린더 도쿄한국문화원 재일 화가전 개최 외
- 21 OKF 뉴스 재단 중국에서 조선족 차세대 육성 현황 파악 외
- 22 지구촌통신원 佛 대선, 마크롱 당선에 한인사회 안도... “한국경제에도 긍정적”
“르펜이 당선됐으면 짐 싸서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을 것”
- 23 우리말 배워봅시다
- 24 고향의 맛·멋 본고장에서 맛보는 별미 왕갈비, ‘수원갈비’
전국 최대 우시장이 해방 후 ‘수원갈비’가 탄생한 배경
- 26 재단공지



표지 이야기

서울과 제주에서 열린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가한 11개국 37명의 한인 정치인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글로벌 한인 공동체의 기여와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행인 : 주철기 등록번호 : 문화-라 08249
 발행처 :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 재외동포재단 홍보조사부 prc@okf.or.kr
 제작 : 연합뉴스 인쇄 :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 정치인 37명, 한반도 평화통일 기여 방안 모색

서울·제주서 열린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서 열린 토론



1



2



3

1.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는 11개국 37명의 한인 정치인이 참가했다.
2. 스웨덴 3선 국회의원으로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한 예시가 폴피에르 씨는 방한기간에 재외동포재단 라디오 캠페인광고에도 출연했다.
3. 우즈베키스탄 첫 선출직 고려인 하원의원인 박 빅토르 씨가 포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전 세계 한인 정치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5차 세계한인 정치인포럼'이 5월 29일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과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신킨리 류) 주최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글로벌 한인 공동체의 기여와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포럼에는 재미동포 최초 여성 시장 출신으로 세계한인정치인 협의회를 이끄는 신킨리 류(60·여) 미국 워싱턴 주 하원의원을 비롯해 한인 2세로 가장 높은 관직에 오른 변겨레(30)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 고려인 출신 최초의 3선 의원이었던 유리

텐의 아들 세르게이 텐(41) 러시아 연방 하원의원, 지난해 의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발의해 만장일치 채택을 끌어낸 멜리사 리(52·여) 뉴질랜드 국회의원, 우즈베키스탄에서 첫 고려인 선출직 하원의원에 당선한 고려인 3세 박 빅토르(59), 샌드라리(39·여) 미국 사이프레스 교육위원과 피터 김(34) 미국 라팔마 시의원 남매 등 11개국 37명이 참가했다.

신킨리 류 회장은 2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재외동포는 거주국의 경제·정치·교육·문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하며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며 "한인 정치인은 한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도 헌신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일조해왔다"고 밝혔다.



세계한인정치인들은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이고 모국과 거주국의 상생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과 제주에서 열린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가한 한인 정치인들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글로벌 한인 공동체의 기여와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정치인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모국과 거주국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철기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한인 정치력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4번의 포럼은 차세대 한인 정치인의 증가와 한인의 주류 정치 참여를 끌어냈다”며 “한인 정치인들이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 번영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북핵 위기의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만 외교부 재외동포영사대사는 축사에서 “720만 재외동포가 모국과 끈끈한 유대감을 갖고 거주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칼미키야 자치공화국 엘리스타 시의원으로서 성악가 출신인 김 메르겐 씨의 축하무대가 이어져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한인 정치력 신장 통해 모국 기여 모색

30일 오전에 진행된 ‘정치인포럼 I’에서는 ‘북핵 위기 대응과 새로운 동북아의 구축’을 주제로 북핵 위기 상황에서의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사회로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훈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발제자로 나서 강연을 한 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오후에 열린 ‘정치인포럼 II’에서는 현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인 씬디 류 미국 워싱턴 주 하원의원의 진행으로 내부회의가 열렸다. 2018년 미국에서 개최를 추진하는 포럼 준비와 함께 차세대 정치인 발굴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류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 단체는 2007년 제1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서 발족했다. 초대 회장으로 임용근 미국 오리건 주 전 상원의원이 활동했고, 2015년 류 하원의원이 2대 회장에 올랐다.

30일 저녁만찬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최로 열렸다. 정 의장은 한인 정치인의 약진은 동포사회의 발전이라며 이들을 격려했고 ‘사해동포는 하나’라는 의미에서 참가자들과 만국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31일에는 제주도로 이동해 제주포럼과 연계해 행사를 진행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정치인포럼 III’에서는 한반도 전문가 발비나 황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교수와 진창수

Interview

차기회장에 재선임된 씬디 류 美워싱턴 주 하원의원

“대륙별 네트워크 활성화해 한인 정치 파워 키우겠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인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차기 회장에 씬디 류(여·60) 현 회장이 재선임됐다.



이 단체는 5월 30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총회를 열어 류 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총회에는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린 ‘제5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가한 11개국 37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앞으로 2년간 협의회를 이끌게 된 그는 미국 워싱턴 주에서 4선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추대 직후 “전 세계에서 전·현직 한인 정치인은 500명이 넘지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며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도록 조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우선 대륙별로 부회장을 두고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것이며 이들을 통합 관리하는 수석부회장이 자연스럽게 차기 회장으로 뽑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한인 정치인 파워를 키우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평화 통일을 위한 글로벌 한인공동체의 기여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씬디 류 의원, 박 빅토르 우즈베키스탄 하원의원, 손기웅 통일연구원장,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황**

전 세계 주류사회로 약진하는 한인 정치인

김 메르겐 · 성영준 · 데이브 민 · 이진영, “거주국-모국간 가교”

“한인사회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

성영준 미국 텍사스 주 캐롤튼 시의원



재미동포 1.5세 성영준(51) 씨가 미국 텍사스 주 캐롤튼 시 의원에 당선됐다. 성 씨는 5월 6일 열린 캐롤튼 제6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61.15%의 지지를 얻어 경쟁자 신시아 노스롭을 따돌리고 시의원에 당선됐다고 현지 동포신문들이 5월 8일 전했다.

2014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고배를 마셨다가 3번 만에 승리한 그는 텍사스 주 첫 번째 한인 시의원이자 캐롤튼 시의 첫 아시아계 시의원이기도 하다.

인구 17만여 명의 캐롤튼 시에는 백인 70%, 한인을 포함해 아시아인 10% 정도가 거주하는데, 그는 경찰협회·소방협회·부

동산협회 등의 지지를 받았다.

성 당선자는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이민 1세에게는 노력과 헌신을 보상하고, 2세에게는 꿈과 동기를 주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11살에 부모를 따라 도미한 그는 부동산비즈니스 및 법원 중재, 통역 등의 일을 한다. 델러스한인축구협회장을 맡아 봉사하고 있으며, ‘캐롤튼 경찰과 차한잔’이라는 이벤트를 펼쳐 주류사회와의 교류를 맺어왔다.

고려인이 쌀농사 전파... “남북 모두 모국, 평화통일 지지”

김 메르겐 러시아 칼미키야 공화국 시의원



“목축국가인 러시아 칼미키야 공화국에 쌀농사를 전파한 건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주해온 고려인들입니다. 현재 3천여 명의 고려인은 모국이 한국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품고 한민족의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서쪽에 있는 칼미키야의 수도 엘리스타 시의원인 고려인 3세 김 메르겐(34) 씨는 “고려인은 30만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1960~70년대에 농업경제 분야의 발전을 이끌면서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5월 29일부터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한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차 한국을 처음 찾은 그는 “1940년 사할린으로 강제징용됐다가 일본의 패망 후 칼미키야로 이주한 조부는 평생 고국을 그리워했기에 이번 방한이 무척 기쁘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칼미키아는 몽골의 후손인 칼미크인을 비롯해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체첸·다게스탄·터키인 등 15개 이상의 다민족이 모여 사는 유럽 유일의 불교국가다. 2014년 임기 5년의 시의원에 당선돼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에게는 또 다른 직업이 있는데 뜻밖에도 국립오페스트라단 소속의 테너 가수다. 어려서부터 노래 신동으로 불리던 그는 모스크바 국립예술대에서 성악을 전공해 2008년 오페라 가수로 데뷔했다.

2009년에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올해의 예술가 성악 부문 신인상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현재 오페라의 주역으로 활

동하고 있다.

바쁜 와중에 그는 칼미키야고려인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다. 김 씨는 “고려인들은 모국의 눈부신 발전상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면 기뻐하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걱정을 한다”면서 “같은 뿌리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려인에게는 남한도 북한도 모두 모국입니다. 평화롭게 지내며 통일이 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죠.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정치인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에 통일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재미동포 2세 잇따라 정치무대 도전

데이브 민, 연방 하원의원… 이진영 씨 주 상원의원 출마



한인 이민자 2세인 데이브 민(41) UC어바인 법대교수는 내년 캘리포니아 주 연방하원 선거 45선거구에 출마해, 현직 미미 월터스(공화) 의원에게 도전할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으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그는 “미국의 어떤 가치가 이민자들을 이곳에 오게 했는지 생각해봤느냐. 관용과 다양성, 경제적 기회, 사회적 유동성 등이다. 트럼프의 정책은 반미국적”이라고 말했다. 민 교수는 하버드 법대 출신으로 계약, 금융규제, 부동산 분야를 전공했다.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에 3년간 몸담았으며 슈머 상원의원이 경제위원장을 할 당시 보좌관을 지냈다.

한편 시애틀에 거주하는 30대 한인 여성 이진영(영어이름 진영 잉글랜드·34) 씨는 동포 언론에 “워싱턴 주 상원 제45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추천됐다”고 발표했다. 주 상원 45선거구는 지난해 앤디 힐 의원이 사망하면서 디노 로시가 자리를 물려받았다. 로시는 올해 치러질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의 보좌관인 이 씨를 추천했다.

이 씨는 오는 8월 예비선거를 치르고 2위 안에 들면 11월 본선거에 도전한다. 여기서 승리하면 워싱턴 주 첫 한인 여성 상원의원이 된다. 45선거구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이어서 현

지 언론은 이 씨의 당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다.

이 씨는 “주 상원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문제를 제대로 청취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구 주민과 학교, 소상공인 등 주 상원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이나 기관, 사업체 등을 대신해 봉사하려고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에서 복무한 한인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서울에서 태어난 그는 5살 때 아버지를 따라 독일 등지에서 살다가 1996년 시애틀에 정착했다. 워싱턴대(UW)를 졸업한 뒤 선교기관인 ‘아이리스’(IRIS)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파송돼 2년 반 동안 선교와 봉사활동을 했다. 이후 워싱턴 주 제5선거구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의 보좌관으로 4년간 활동했다.

2012년 대선에서 밋 롬니 캠프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잭 부시 후보를 도왔다. 그는 지난해 정치단체인 ‘매브릭 팩’으로부터 ‘40세 이하 차세대 40인’에 뽑혔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선정한 ‘아름다운 정치인 50인’에도 올라 주목을 받았다. **창**



文대통령, 4강외교 기본 틀 복원... ‘정상회담 준비’ 태세

“북핵·사드·위안부 현안 ‘예열’ 거쳐 정상회담으로 마무리 전략”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통한 간접적인 4강(強) 정상외교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면서 ‘외교 정상화’의 초석을 다졌다. 문 대통령은 5월 24일 임무 수행을 마친 미국·중국·일본 특사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특사외교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러시아 특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이날 푸틴 대통령과 회동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특사단 접견에서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였는데,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되면서 우리나라의 정상외교가 울스톱 된 이후 조기 대선을 거쳐 반년 만에 정상외교를 복원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4강은 물론 우방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등 정상외교 복원을 가장 서둘렀다. 북한의 핵실험 조짐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미국의

선제공격설 등으로 확산한 ‘한반도 위기론’을 우선 잠재울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가장 유력한 후보로서 ‘한반도 전쟁 불가’ 방침을 대내외에 잇따라 천명하고 우리 정부의 용인 없이는 어떤 군사적 옵션도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 정상 간의 통화로 안보 위기를 둘러싼 급한 불을 끈 문 대통령은 지체 없이 무게감 있는 인사들로 특사단을 꾸려 4강 정상들에게 대한민국 새 대통령의 의중과 함께 친서를 전달하면서 정상외교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발짝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현상 차단에 주력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사드 문제도 그렇고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할 말을 좀 제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를 뜻한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철학에 따라 4강 특사외교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



“아세안, EU에도 특파 파견… 외교 다변화 의지 표명”

주미 특사였던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지금은 압박과 제재 단계에 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로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는 말을 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의 국회 논의 필요성을 역설해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부터 이해를 구했고,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체제 보장을 언급하기도 해 미국이 무조건적인 강경책을 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총리에게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갈등을 잘 처리해 양국 관계를 이룬 시일 내에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리길 바란다”는 긍정적인 언급을 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사드에 대한 매듭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는 12·28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고, 아베 총리도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시선은 조만간 열릴 이들 정상과의 공식 회담에 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특사 외교가”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강 이외에 역대 정부 처음으로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유럽연합(EU)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윤제 서강대교수를 특사로 파견해 새 정부의 외교 다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화통화와 특사를 통한 접촉을 거쳐 ‘여열’한 정상외교를 실제 만남을 통해 완벽하게 복구하는 동시에 그 여세로 북핵

문제와 사드 등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을 정면돌파해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대통령 집무실 ‘일자리 상황판’… 靑 홈페이지에도 공개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5월 30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첫 부처 간 ‘활동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하반기 1만2천 명의 공무원을 총원하는 방안을 비롯하여 부처별 일자리 늘리기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첫 번째 고리로 일자리 창출을 꼽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5월 24일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이를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데 이어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상황판을 공개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의 현황판을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뜻에 따른 조치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을 직접 시연하며, 청와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도 상황판에 표출되는 일자리 지표변화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창

1.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중·일 특사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 문재인 대통령이 5월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울란바타르 거주해 서로 가까운 몽골 한인사회

동유럽 개방 후 선교사가 이민 개척... 양국 인적 교류 활발



1



2



3

1.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인근 테를지 국립공원 내의 몽골 전통가옥 게르.
2. 매년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수도 울란바타르에서는 민속 스포츠 축제인 '나담 축제'가 펼쳐진다. 사진은 말타기, 활쏘기와 함께 대표적 경기인 몽골 씨름.
3. 울란바타르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광장.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래 여러 방면에서 빠른 속도로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양국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현재 한국에는 3만여 명의 몽골인이 거주하고 있다. 몽골 전체인구의 약 1%에 해당한다.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서 거주하고 몽골로 귀국한 몽골인은 30만 명을 넘어선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몽골 유학생은 5천 명을 넘고, 몽골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 또한 4천 명을 넘는다. 몽골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2천800명 정도다. 2014년 9월 기준으로 몽골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중국인이 2만6천5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국인(2천948명), 러시아인(2천759명), 미국인(2천676명), 북한인(2천647명) 순이다.

수교 이후 몽골 땅을 처음 밟은 한국인 가운데 한 명은 여성 선교사인 강영순(몽골 이름 강토야) 씨로 몽골에 탁구를 지도하기 위해 들어갔다. 계로이 씨는 한국 마사회 임원을 은퇴하고 몽골에서 좋은 말 종자를 찾다가 몽골에 매료되어 공부하려 왔

다. 한국인 몽골 유학생 1호인 셈이다. 계로이 씨는 가족과 함께 몽골에 와서 개방 이후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웠던 1990년대 시기를 지내면서 1, 2대 몽골 한인회장을 맡아 현지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몽골 거주 한인인 대체로 기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상공인과 선교사, 주재원, 대사관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몽골에 진출한 주요 기업은 삼성물산, 포스코 에너지,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전선, KT, KOTRA 등이다. 한인의 몽골 이민사에서 '개척자' 역할을 한 사람은 교회 선교사들이다. 1990년대 동유럽 문호가 열리면서 이 지역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몽골은 지역적으로 가깝고, 인종적으로도 가깝다는 친근감이 있고 중국에 비해 어렵지 않은 선교 환경 덕분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다.

선교사들 간에 연합이 매우 잘 되는 점도 요인이 됐다. 선교사들의 언어 태도와 옷차림, 몽골인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인격

Mongolia

적이어서 몽골인들에게 호감을 줬다고 몽골 한인회 관계자는 말했다. 또한, 선교사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아 몽골 사람들은 한국인을 생각할 때 담배와 술을 안 하는 민족으로 여길 정도 였다고 한다. 수교 초기에는 선교사들이 몽골에 들어갔으나 몽골 경제가 어려워지고 비자도 까다로워지면서 많이 철수했고 현재는 100~120명 정도의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한인교회는 3개가 있다.

몽골한인회는 민간 외교 역할은 물론, 한인 동포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 신년하례식과 추석행사, 이태준공원에서 거행하는 광복절, 3·1절 행사, 동포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이태준 공원 관리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특별사업으로 한·몽 우수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6회째 이어가고 있다. 몽골은 다른 나라 한인회와 달리 수도 울란바타르에 한인의 99%가 몰려 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지낼 정도로 사이가 가깝다.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몽골인의 관심은 개방 초기 고조됐다 가 자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관심이 줄어들었으나 경제가 급속히 나빠지자 다시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몽골에는 현재 20개 대학에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있다. 몽골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2천 명 가량 되고, 중고교도 13개 학교에 한국어반이 개설되어 2천500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몽골 경제가 나빠지면서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몽골인이 많아지고 있다.

몽골은 풍부한 광물 자원 덕분에 수년 전만 해도 경제가 두 자릿수로 성장했으나, 지나치게 광업 의존적인 경제는 몽골 광물의 주요 수입국이던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둔화로 수출이 급감하고, 세계적인 1차 상품의 가격이 주저앉자 도리어 화근이 됐다. 몽골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협상에 목매달고 있는 가운데 몽골 국민이 자발적인 국제보상 운동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몽골 정부는 자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주지 않고 몽골에서 다년간 거주한 한국인에게 3년, 5년 기간 비자를 주지 않고 1년에 한 번씩 거주 비자를 갱신토록 하는 등 비자정책을 매우 까다롭게 바뀌어나가고 있다.

한국인에 대한 몽골 사람들의 인식은 과거 매우 좋았던 것에 비해 많이 나빠졌지만, 한국문화나 한국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몽골에 들어간 한국인상공인들 가운데 경우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몽골인 가운데 한국에 유학 가



4



5



6

4. 작년 7월 28일 울란바타르에 개점한 이마트 몽골 1호점이 현지인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5. 2015년 8월 15일 울란바타르의 '이태준공원'에서 거행된 광복 70주년 기념식.
6. 1999년 5월 31일 한국 국가 원수로는 처음 몽골을 국빈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나차긴 바기반디 몽골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거나 근로자로 갔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온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개방 당시 가졌던 것보다 많이 나빠졌다. 그럼에도 몽골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코리아드림'이라고 부를 정도로 경제 사회적으로 신분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다.

한·몽골 양국 간 상호 방문객은 연간 15만 명에 달한다. 주 6회 운항하고 있는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에 이어 지난해 6월 부산 김해공항~몽골 울란바타르 직항노선이 주 2회 운항에 들어감으로써 인적교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창**

‘몽골의 슈바이처’로 추앙받는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2006년 건립된 울란바타르의 명소 '이태준 기념공원' (좌), 이태준 기념공원에 설치된 '애국지사 이태준 기념관'.



국가보훈처는 올해 1월 30일 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면서 독립운동을 도운 대암(大岩) 이태준(1883~1921) 선생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태준은 누구인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몽골에서는 ‘몽골의 슈바이처’로 추앙받고 있다. 한·몽 친선의 상징적 인물이기도 하다. 경남 함안에서 태어난 선생은 1907년 세브란스 의학교에 입학, 항일 활동을 했고 1911년 중국 난징으로 망명한 뒤 다시 몽골로 이주해 몽골 국왕의 어의로 활약하며 1921년 사망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펼쳤다.

세브란스 의학교 재학시절 안창호 선생의 권유로 비밀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에 가담했다. 이태준은 심화하는 일제의 침략과 탄압에 분개하던 차에 중국의 신해혁명(1911년)에 감동했다. 일제가 날조한 ‘105인 사건’으로 체포 위기에 처하자 중국 남경으로 망명한 데 이어 김규식과 함께 몽골로 향했다.

이태준은 몽골 고륜(현재의 울란바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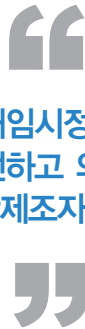
르)에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개업했다. 당시 몽골인들의 70% 이상이 감염됐던 화류병(매독) 퇴치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이태준은 고륜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고 몽골의 마지막 황제 보그드 칸의 어의가 됐으며 당시 외국인에게 수여된 최고 등급의 몽골 국가훈장을 받았다.

근대적 의술을 베풀면서 몽골사회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은 선생은 몽골과 중국을 오가는 애국지사들에게 숙식과 교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신한청

년당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상해 임시정부로 가는 코민테른 자금 40만 루블 상당의 금괴 운송에 참여한 이태준은 북경에서 의열단 단장인 약산(若山)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해 비밀활동을 지원했다. 우수한 폭탄 제조기술자인 헝가리인 마자르를 의열단에 소개함으로써 의열단의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도왔다.

그러나 선생은 몽골을 점령한 러시아 백군 운게른의 부하들에 의해 38세의 젊은 나이에 일생을 마감했다. 몽양 여운형은 1921년 가을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원동민족혁명단체 대표회에 참가하기 위해 러시아로 가던 중 고륜에 체류하게 됐다. 몽골인들이 성산(聖山)으로 부르던 고륜의 남산(南山) 건너편 구릉 한복판에 있던 이태준의 묘를 찾아 애도했다.

2001년 7월 선생의 업적을 기념해 국가보훈처와 연세의료원의 재정지원으로 울란바타르 시, 복드칸 산 남쪽 기슭에 ‘이태준 기념공원’을 준공했다. 이어 2010년 공원 내에 이태준 기념관을 개축해 공원은 울란바타르의 명소가 됐다. 주몽골 한국대사관과 한인회, 연세의료원, 몽골 정부 측 인사로 구성된 ‘이태준기념공원 관리위원회’가 공원의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독립운동에 앞장선 선생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정]



상해임시정부에
자금 전하고 의열단에
폭탄제조자 소개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YBLN) 포럼 뉴욕서 개최

전 세계 차세대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인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회장 최분도)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 맨해튼 래디슨호텔에서 '제8회 YBLN 뉴욕포럼'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21개국 80여 명의 젊은 한상 회원과 가족, 한인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셸포럼, 경영 노하우 공유 프로그램, 초청세미나 등에 참여했고 역량을 키워 경쟁력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었다.

행사 준비위원장인 정주호 북미동부 대표는 포럼에서 "YBLN은 형식적인 친목 모임이 아닌 교류의 공동체라서 늘 긴밀하고 끈끈한 소통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최분도 회장도 "제조, 유통, IT, 무역, 도소매 등 14개 업종의 회원들이 각 분야에서 쌓은 비즈니스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며 "아직도 해외에선 '한인을 조심하라'는 선입관이 남아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YBLN이 구심점 역할을 하자"고 당부했다.

2008년에 출범한 YBLN은 전 세계 31개국 182명의 경제인이 회원으로 있으며 연례 정기포럼과 지역포럼을 비롯해 매년 5월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 YBLN 뉴욕 포럼에는 21개국에서 80여 명의 젊은 한상이 참여했다.

에는 회원들이 있는 각국 도시를 선정해 시티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2010년 LA에서 시작된 시티포럼은 브라질 상파울루, 일본 도쿄, 호주 시드니 등에서 열렸다.

YBLN에는 해외에서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연매출 2억 달러 이상 기업의 임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

인재양성 위해 물심양면으로 돕는 YBLN 장학사업

고국 청소년의 꿈을 후원하는 YBLN의 장학사업은 장학금 등 재정적 후원에만 그치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게 특징이다.

YBLN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국소년소녀가장돕기시민연합의 추천을 받아 고등학생과 대학생 5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학비·생활비 지원은 물론 장학생 1명당 관심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내 회원과 해외 회원 각 1명을 멘토로 지정해 주기적으로 멘토링을 해주고 해외 유학·체험의 기회도 제공한다.

최분도 회장은 "대학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한 장진영 군은 지난 4월부터 회원이 운영하는 도쿄의 일본어학교에서 무료로 배우는 해외연수를 시작했다"며 "대학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한 장진영 군은 장래 희망이 일본에서 창업하는 것이라 연수 기회를 제공했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해 주는 등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게 돕고 있다"고 소개했다.

YBLN은 올해부터 회원 자녀를 대상으로 회원사 '인턴십 체험' 사업을 시작했고, 자녀들의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 7월에는 경남 합천에서 'YBLN 회원 가족캠프'도 열 계획이다.



YBLN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진영(사진 우) 군과 일본 연수를 돕고 있는 이상훈 회원.

“음식문화 통해 한일 양국 간 거리 좁히는 일에 자부심”

일본에 전통 한식 ‘음식디미방’ 보급하는 **조선옥** 씨



“한일 음식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해 조선 시대 양반가의 전통 요리인 ‘음식디미방’(飮食知味方)의 일본 보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최로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서울국제푸드그랑프리’에 참가

한 조선옥(사진 윗줄 왼쪽 끝, 50) 요리연구원장은 도쿄에서 일본인 한식 요리사를 1천 명 이상 양성한 재일동포 한식 명인이다. 그는 “한식을 전공한 일본인·재일동포 제자들과 ‘음식디미방’ 요리를 선보이려고 푸드그랑프리에 도전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조선 중기 여류 문인으로 최초 한글 요리책인 ‘음식디미방’을 쓴 장계향의 요리를 후손인 조귀분 씨로부터 전수 후 일본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음식 맛을 아는 법’이란 의미의 ‘음식디미방’에는 51종의 술 빛는 법 등 146가지 영남지방 양반가의 요리법이 자세히 담겨있다. 그는 지난 2월 일본 아오모리 현 이라카와 시에서

일식 요리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음식디미방 전시 및 시식행사’를 열었고, 지난달에는 도쿄에서 음식 파워블로거를 초청해 ‘음식디미방’ 요리를 소개하기도 했다.

장계향의 후손이 사는 경북 영양군의 홍보대사이기도 한 조 원장은 ‘음식디미방’에 빠저든 이유에 대해 “천연의 효소와 조미료를 중시하는 데다 먹는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한 식재료 선별과 조리법을 강조하는 점이 내가 추구하는 요리법과 맞았다”고 밝혔다. 이어 “웰빙을 중시하는 현대인의 취향에도 딱 맞는 음식으로 전통의 재현이 아니라 재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하반기에 도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식디미방’ 요리강좌를 열고, 연말에는 책을 일본어로 번역해 발간할 계획이다. 한의학에 기초한 약이 되는 음식을 가리키는 약선(藥膳)요리를 시작으로 궁중요리, 전통 요리, 떡 등 다양한 한식을 섭렵한 조 원장은 일본에서 한식 관련 방송 출연을 비롯해 한국 요리 이벤트나 한식 문화 강연 단골 출연자로 활동하는 ‘한식전도사’다. 최근에는 한일 농수산식문화협회를 통해 ‘한식소믈리에’ 자격 과정을 만드는 등 일본인 한식 전문가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美 ‘클리블랜드 국제 명예의 전당’에 한인 최초 입성

한국전 참전용사 지킴이, 전 한인회장 **김승규** 씨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개인을 기리기 위해 설립한 ‘명예의 전당’에 한인이 최초로 이름을 올렸다. ‘클리블랜드 국제 명예의 전당’(Cleveland International Hall of Fame) 이사회는 전 클리블랜드 한인회장 샘 김(사진 오른쪽, 70·한국명 김승규) 씨를 2017 헌액 대상자 6인 중 한 명으로 선정, 발표하고 4월 18일 기념식을 했다. 명예의 전당 측은 김 씨가 오하이오 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로가 인정받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하고 노숙자들과 저소득층에게 음식, 의류를 제공하는 행사를 벌였으며 한인회장(2009~2011)으로 클리블랜드 시·오하이오 주와 한인사회 간 협력관계를 육성·발전시켰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처음 추천을 받고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나 하는 생각에서 고사했다”며 “올해 재추천을 받고 감사히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2010년 한국전 참전용사 25명을 교회로 초청해 점심을 제공한 것을 계기로 오하이오 주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두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사람들을 만나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며 눈물을 쏟는 참전용사들을 보면서 그들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새삼 다시 들었다”며 “2011년부터 시카고 한인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참전용사와 가족 등 200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로 발전했다”고 언급했다.

김 씨는 비영리단체 ‘한미우호네트워크’와 ‘사랑의 담요 나누기’·‘사랑의 점퍼 나누기’ 행사를 펼치면서 노숙자와 저소득층 주민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에도 앞장섰다. 또한, 클리블랜드 시와 관계를 돈독히 쌓아 2013년부터 삼일절·

광복절·미주 한인 의 날을 맞아 클리블랜드 시청에 태극기가 게양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그는 클리블랜드 명소 록펠러 공원에 영국·프랑스·일본·



중국·라오스 등 전 세계 정원이 조성돼있으나 한국 정원만 없으면서 2010년부터 추진하다 예산 부족으로 무산된 사업의 결실을 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이자 소망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서 태권도·탱고 결합한 ‘탱고 아리랑’ 선보인다 태권도 사범 출신 명인 ‘탱고 홍보대사’ 공명규

탱고 마에스트로인 공명규(59) 씨에게는 여러 수식어가 붙는다. 한국인 최초 아르헨티나 정부 ‘탱고 홍보대사’, 아르헨티나 동양인 최초 PGA 프로골퍼, 아르헨티나 대통령 경호 태권도팀장 등이다.

그는 6월 28일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예술의 전당에서 ‘아르헨티나 태권도 진출 50주년-공명규의 탱고 아리랑’ 공연을 선보인다. 공 씨는 “정통 탱고의 진수도 선보이고 태권도를 결합한 세상에 없는 탱고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 씨는 1980년 태권도 사범으로 남미로 이주해 국가대표팀, 대통령 경호팀, 육군사관생도, 경찰관을 지도했다. 1993년부터 PGA 선수로 활약하면서 아르헨티나 프로리그 상금 6위에도 올랐으며 1996년에는 아르헨티나 탱고협회로부터 ‘마에스트로’ 자격을 취득했다.

이번 공연에 대해 그는 “공연 중간에 태권도 격파 시범도 있고, 국기원이 보내준 태권도 홍보영상을 소개한다. 물론 탱고의 영원한 주제곡으로 불리는 ‘라 콤파르티타’(가장행렬)나 탱고 거장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자유탱고) 등 탱

고 애호가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가 공연의 중심이다”고 소개했다.

공 씨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에 태권도 동호인은 50만 명에 이른다. 지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태권도로 금메달을 따는 등 대중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

그는 1997년부터 한국과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탱고 전도사’로 활동했다. 재외동포재단 초청 코리안페스티벌에서 탱고를 선보이기도 했다. 탱고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크고 작은 무대를 가리지 않았고, 자비를 들여서 현지인 무용수를 초청한 공연도 열었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으로부터 탱고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금까지 가르친 제자가 1만 명이 넘는다. 이 중에는 탱고를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아르헨티나로 유학을 가기도 하고, 현지에서 탱고 댄서로 활약하는 제자도 나왔다. **창**



올 9월부터 佛 초·중·고교서 한국어 이중언어교육 실시



프랑스 초·중·고교가 9월부터 불어와 한국어로 함께 수업하는 정규교과 체계를 시행한다.

올 9월부터 프랑스의 초·중·고교에서 역사와 수학, 문학 등의 과목을 불어와 한국어로 함께 배우는 정규교과가 시행된다. 4월 19일 주프랑스한국교육원(원장 김현아)에 따르면 프랑스 초·중·고교에서 9월부터 한국 '국제섹션'이 설치된다. 국제섹션은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와 교과목을 프랑스어와 해당 외국어를 섞어서 수업하는 정규교과 체계다.

현재 프랑스 초·중등학교에는 영어와 스페인어, 독일어 등 17개 언어의 국제섹션이 개설돼 있다. 초등학교 114곳, 중학교 189곳, 고등학교 160곳에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국제섹션에 한국어가 추가되면서 프랑스 공교육 내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접하는 장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불한국교육원은 설명했다. 한국 국제섹션은 재외동포 2세와 프랑스인 학생 중에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주불한국교육원은 이날 파리한글학교에서 베르사유 교육청 장학관과 국제섹션을 개설한 중학교 교장 등을 초청한 가운데 학부모 설명회도 열었다.

베르사유교육청 관계자는 "아시아 언어 중 중국어와 일본어의 국제섹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한국어도 도입되면 반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프랑스 초·중·고교에서 한국 국제섹션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교사 파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미 동포 11만 명, 백악관에 '동해빙기' 청원... IHO에도 공문



미국 워싱턴DC와 인근 지역 교민단체가 4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미 연방정부에 대해 두 가지 표기를 병기해달라는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11만 명에 달하는 재미 동포가 동해(the 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표기하는 미 연방정부에 대해 두 가지 표기를 병기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4월 25일 백악관에 제출했다. 동해 표기를 국제 표준으로 채택하는 문제 등을 다루는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전날 개막한 것과 시기를 맞췄다. 이번 청원과 서명 작업을 주도한 워싱턴DC와 버지니아 주, 메릴랜드 주, 한미여성재단, 미주 한인의 목소리 관계자들은 이날 버지니아 주 폴스처치에 있는 버지니아 주 한인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명은 지난 3월부터 미국 전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전날까지 10만8천300명이 청원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또 백악관뿐 아니라 일본과 북한을 제외한 IHO 회원국 전체에 '동해빙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4월 20일 동시에 발송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달 만에 서명 인원 10만 명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다시 한 번 한민족의 저력을 보여줬다"면서 "이번만큼은 백악관이 정책을 바꿔주길 희망한다. 트럼프 정부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또 "1929년 IHO의 첫 국제회의 이후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 교과서, 출판물에는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오늘날까지 배우고 가르치며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2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동해'라는 바다를 되찾아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뉴질랜드 연간 이민자 사상 최대 7만2천 명... 한국인 2천740명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 국제선 입국장.

뉴질랜드의 순 이민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지난 1년간 7만2천 명에 육박,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4월 26일 자국에 거주하기 위해 입국하는 이민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연간 순 이민자 수가 기록적으로 많은 7만1천932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국 출신은 1천838명이었고 중국과 인도는 각각 1만200명과 7천999명이었다. 순 이민자 수는 거주 목적으로 들어온 유입 이민자에서 밖으로 빠져나간 유출 이민자를 뺀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간 순 이민자 수는 7만1천333명이었다. 통계청은 유출 이민자 증가 폭은 완만한 데 비해 유입 이민자 수는 계속 가파르게 느는 추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특히 유입 이민자 수 증가세에 대해 지난 2월 말까지 1년 동안 12만8천800명이었던 연간 유입 이민자 수가 3월 말까지 1년 동안은 12만9천500명으로 700명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

이들을 출신국으로 분류했을 때 유입 이민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호주로 2만5천557명이었고 그다음은 영국 1만5천 명, 중국 1만2천358명, 인도 9천547명 등이었다. 한국은 2천741명으로 한 해 전보다 658명 증가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한국으로 떠난 유출 이민자 수는 903명으로 한 해 전보다 20명 늘었다.

전 세계 한인학자의 축제, ‘세계한인학술대회’ 개최

재외동포재단과 재외한인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7 세계한인학술대회’가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의 창립 20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국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학술 행사다.

동포사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 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김 게르만 카자흐스탄 국립대 교수, 권오정 일본 류코쿠대 명예교수, 송창주 뉴질랜드 오클랜드대학 교수 등 17개국 150명의 한인학자가 참석한다.

첫날인 27일에는 개회식과 기초강연에 이어 ‘동북아 시대의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획세션Ⅰ과 동포사회의 세대교체 현상에 대해 논의하는 기획세션Ⅱ가 열린다.

대회 2일차에 열리는 기획세션Ⅲ에서는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거주 동포의 실태와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는 제도적 차별을 살펴본다.

기획세션Ⅳ에서는 재외동포의 외연 확대 방안에 집중한다. 20만 명에 달하는 입양한인과 34만으로 추산되는 귀화 재일동포, 전 세계에 퍼진 조선족 등을 재외동포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국가적 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지역세션은 북미와 중국, 일본, 러시아·CIS, 중남미·동남아, 유럽·오세아니아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2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

주철기 이사장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재외동포의 외연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 이민자와 신세대들이 상파울루 구시가지 현대화 주도



상파울루 시내 한인 밀집지역인 봉헤치루.

한인 이민자들과 신세대들이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표적인 구시가지 가운데 한 곳인 봉헤치루 지역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유력 일간지 폴라 지 상파울루는 4월 23일 의류업체가 대부분인 봉헤치루 지역에 최근 들어 한인들이 운영하는 커피 전문점과 레스토랑 등 다양한 상점이 들어서면서 상파울루의 새로운 명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봉헤치루 지역에서는 요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상파울루 시 당국은 2010년 1월 조례를 통해 봉헤치루 지역을 '한인타운'으로 지정한 데 이어 최근에는 8월 15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시의 공식 웹사이트와 간행물의 문화행사 일정에 '한국 문화의 날'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내 한인사회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시 당국의 재정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단 참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앙 도리아 상파울루 시장은 봉헤치루를 상파울루의 '리틀 서울'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리아 시장은 한인타운 내 한국 상징물 설치와 한국 음식·제품 홍보 공간 마련, 한인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문화교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리틀 서울'이라는 명칭이 다른 이민자들의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한인 동포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세계한인체육회장대회... “활성화 방안 모색”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회장 윤만영)는 5월 24~28일까지 충북 청주시와 서울 등지에서 '제3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를 개최했다.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5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외 한인 체육단체의 역할과 활동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학술포럼을 열었다.

재외동포 체육단체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동과 역할 등을 국내에 소개하기 위한 이 행사에는 미국·중국·일본·캐나다 등 18개국 한인체육회장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오는 10월 충주시에서 열리는 제98회 전국체전 사전 준비 형식도 띠는 이 대회는 전국체전 관계자 회의, 충청북도 도지사 초청 만찬, 국회의장 면담, 유관기관 방문, 숙소 및 경기장 참관, 진천 선수촌 방문 및 선수촌장 면담,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 임시총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5일 오전에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외 한인 체육단체의 역할과 활동 및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포럼을 열어 고국의 체육발전을 위해 국가대표 등의 전지훈련이나 현지에서 경기를 할 때 고국 선수단의 사기진작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봉사하는 해외 한인 체육단체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윤만영 회장은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인 체육단체의 활동상과 역할 등을 소개하고, 전국체전 개최지를 사전에 방문해 우리 단체가 체전에 참가할 때 상호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며 “모국에서도 재외동포 체육 및 한인 체육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지난 2013년 창립된 세계한인체육회총연합회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정받은 18개 재외동포 체육 단체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동포 거상(巨商)들의 성공기 ‘한상 세계를 품다’ 출간

가나에서 유류저장 시설 분야에서 9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가나 최대 건설사 글로텍엔지니어링의 임도재, 자동차·오토바이·유통·은행·신문 등 그룹경영으로 ‘라오스의 정주영’으로 불리는 오세영, 연매출 30조 원인 일본 마루한의 한창우, 인도네시아 재계 서열 20위인 코린도그룹의 승은호... 이들의 공통점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상’ (韓商)이라는 점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세계한상대회 역대 대회장들의 성공이야기 등을 담은 ‘한상 세계를 품다’를 최근 출간했다.

2002년부터 매년 국내서 열린 세계한상대회는 한인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온 동포 분야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장(場)’이다.

책에는 한창우·최종태(이상 일본), 조병태·홍명기·임창빈·정진철·홍성은·고석화·문대동(이상 미국), 승은호·송창근(이상 인도네시아), 박종범(오스트리아), 오세영(라오스), 임도재

(가나) 등 14명의 기업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낯선 땅에서 차별을 이겨내며 부를 일궈내 주류사회에 우뚝 섰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실천해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책은 성공담과 경영철학, 차세대 장학사업, 모국 공헌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거상들은 화상(華商)을 넘어서는 한상 네트워크 구축이 대한민국 발전의 한 축이라며 한상 인턴십 등을 통한 국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 확대를 강조했다.

주철기 재단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넓혀온 한상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경영철학은 국내외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차세대에게도 귀감이 될 소중한 사례”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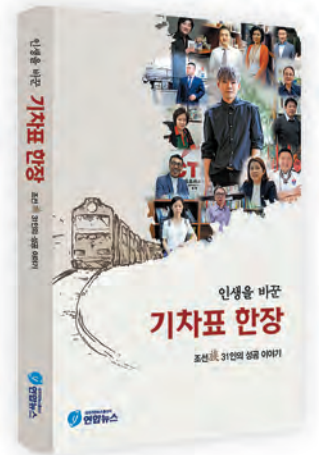
조선족이 쏘아 올린 코리안드림, ‘인생을 바꾼 기차표 한장’

27살 조선족 청년은 낯선 땅 한국에 온 지 사흘 만에 공장에서 오른손을 잃었다. 차디찬 기계에 눌러 손목을 절단해야 했고, 그가 품었던 ‘코리안드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청년은 절망에 굴하지 않고 왼손 하나로 다시 일어섰다. 20년이 흐른 지금 서울 곳곳에 양꼬치 전문점을 개설한 사업가가 됐다. 극적인 사연의 주인공은 이림빈(47·신강양꼬치 대표) 씨다. 생의 밑바닥에서 그를 일으킨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코리안드림’을 이룬 재한 조선족(중국 국적 동포) 31명의 성공기가 책 ‘인생을 바꾼 기차표 한장’으로 발간됐다. 책 속 주인공은 이방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한국 사회에서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인, 예술가, 금융인, 소설가 등으로 당당하게 이름 석 자를 알린 이들이다.

국내 조선족 70만 명 시대가 됐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선입견이 남아있다. 서울과 연변, 한국인과 조선족 사이를 가로막은 장벽을 낮추고자 연합뉴스 글로벌코리아센터는 재외동포·다문화 전담 부서인 한민족뉴스부의 취재망을 가동해 ‘열혈 조선족’ 31명을 엄선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추천사에서 “재한 조선족의 성공 이야기는 중도입국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족 청소년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한국문화원 재일 화가전 개최

주일대사관 도쿄한국문화원은 일본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미술가를 응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작가전 'KOREAN ARTISTS IN JAPAN'을 연다. 도쿄 신주쿠구 문화원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시리즈1(5월 25일~6월 13일)과 시리즈2(6월 15일~7월 4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리즈1에서는 미래를 소재로 평면화 작업을 펼치는 김영창과 다미미술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회화 작가 송연주의 작품 20점을 전시한다. 시리즈2에서는 김재정, 문지영, 이원숙, 최은경의 회화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美 LA 진출 한국 지·상사들 'KITA 장학재단' 출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남부에 진출한 한국 지사·상사들의 모임인 한국지상사 협의회(이하 KITA)가 한인 1.5세와 2세들을 위해 장학재단을 출범한다. 최덕진 KITA 회장은 5월 7일 "지난 1년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장학기금 9만 달러(약 1억 원)를 조성했다"면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다음달 초 'KITA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학기금의 세부 선발과 진행 절차는 KITA 이사회 논의를 거쳐 조만간 KITA 홈페이지(kita.com)에 공지할 예정이다.



加 온타리오 주, 매년 10월 '한인 문화유산의 달' 지정 추진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매년 10월을 '한인 문화유산의 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타리오 주 의회는 5월 4일 조성준(사진·레이먼드 조·81) 보수당 주의원이 발의한 '한인 문화유산의 달 지정'을 위한 법안을 놓고 토론한 끝에 2차 독회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보수당과 신민당 의원을 비롯해 데이비드 지머 원주민장관과 마이클 코토 청소년서비스장관(이상 자유당) 등이 법안 지지발언을 했다. 법안은 3차 독회를 끝내고 주 총리의 재가를 받으면 최종 통과된다.



"한국문화 배워볼래요?" 세종문화아카데미 세계 20곳 개설

세계인에게 케이팝, 한식, 한복 등 한국문화를 전파하는 '세종문화아카데미'가 올해 전 세계 20곳에 개설된다. 올해 상반기 불가리아 소피아, 러시아 모스크바, 리투아니아 빌뉴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이란 테헤란, 베트남 호찌민 등 6개 세종학당에서 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연내 20곳으로 확대한다. 세종학당은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보급하는 교육기관이다.



해외 한인작가 5명의 시선... 국립극단 '한민족디아스포라' 전

국립극단은 6월 1일부터 7월23일까지 한인작가 5명의 대표작을 선보이는 '한민족디아스포라'전을 연다. 타국에서 겪는 문화·세대 차이, 언어·사회적 장벽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다룬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을 다룬 '용비어천가', 해외 한인 입양인의 삶을 소개한 '이건 로맨스가 아니야', 한국을 모르는 재미동포 2세 요리사의 이야기인 '가지', 탈북자의 이야기를 소개한 '널 위한 널 위한 너', 캐나다 한인 이민가정을 소개한 '김씨네 편익점' 등이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 2대 관장에 이성시 와세다대 교수

120년 재일동포의 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해온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2대 관장으로 이성시(사진) 와세다대학 학술원 교수를 임명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재일사학자 강덕성 관장의 후임인 이 관장은 조선 고대사와 식민지조선헌사를 전공했다. 와세다대 조선문화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목간학회 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고난에 찬 재일동포사는 바로 근대 일본의 역사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일본이 다문화공생 사회로 나가기 위해 일본 속에 뿌리내린 재일동포의 존재를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재단 중국에서 조선족 차세대 육성 현황 파악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직원 등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국 지린성 연변조선족자치주의 훈춘시와 엔지시를 둘러보며 조선족 차세대 육성 현황을 파악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5월 12일 엔지시에서 동포단체 간담회를 열고, 연변과기대를 방문해 'IT직업 교육' 시설을 둘러보고 특별강연을 펼쳤다.

방중 첫날인 11일에는 훈춘지역 동포기업인 및 주요 한인 인사들과 간

담회를 열어 기업환경 등 고충을 들었고, 이어 훈춘시 경제합작개발구에 입주한 포스코와 현대물류센터 등을 시찰했다.

12일에는 연변조선족제일중학교 시찰 후 연변대 교수 간담회를 열고, 재단의 지원으로 연변과기대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선족 IT직업 교육' 시설 등을 둘러보고 성과를 확인했다.

주 이사장은 연변과기대 학생 등을 대상으로 '21세기 동북아 평화번영과 동북아 지성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특강에서 주 이사장은 "수많은 국가와 인종이 모인 유럽이 유럽연합으로 통합된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도 평화통일이 가능하며 이것이야말로 동북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동북아 지성인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일에 동참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엔지시 조선족기업가협회 등 동포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육성에 필요한 제반 여건과 요청사항을 파악했다.

마지막 날에는 우수학교로 명성이 높은 룡징 조선족중학교를 시찰했다. 재단은 이번 현황 파악을 토대로 한·중·일 3개국 학교와 모범적인 교류를 펼치고 있는 연변제일중과 룡중 조선족중학교에 문화용품과 수업 기자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변겨레 아르헨 차관보 제주외고서 재외동포 이해교육

재외동포재단의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사로 나선 변겨레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는 6월 2일 제주외국어

고등학교에서 1·2학년 을 대상으로 강연을 펼쳤다.

재단 주최 '제5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을 위해 제주를 찾은 그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시대 재외동포의 의미'라는 주제로 재외동포들의 삶과 재외동포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위상과 고국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질 및 현재 담당하고 있는 문화 차관보의 역할을 소개하기도 했다.



변겨레 아르헨티나 문화부 차관보는 제주외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강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질과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김조현 제주외고 교장은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강연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반겼다.

김조현 제주외고 교장은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재외동포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정치인들의 강연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반겼다.

러시아·CIS 고려인 예술단원들 남도국악원서 국악공연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에서 온 고려인 전통문화 예술인들이 꾸미는 국악공연이 6월 1일 전남 진도군의 국립남도국악원 연수관 홀에서 열렸다.



러시아와 CIS에서 온 고려인 예술단원들이 전남 진도군의 국립남도국악원에서 국악을 배우고 있다.

희망예술단(우크라이나), 도라지 무용단(우크라이나), 만남 무용단(키르기스스탄), 남성 무용단(카자흐스탄) 고려가무단(우즈베키스탄) 등 25명이 예술단 단원들은 재외동포재단 초청으로 5월 12일 방한해 국악원에서 국악 연수를 받아왔다.

재단의 최동준 기획이사는 "이번에 충실히 배운 것을 활용해 거주국에서 한민족 전통예술의 계승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佛 대선, 마크롱 당선에 한인사회 안도… “한국경제에도 긍정적”

프랑스 대통령에 에마뉘엘 마크롱이 당선되자 외교가와 프랑스 한인사회는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마크롱은 경제와 대외관계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주류의 입장을 대변해온 정치인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국가인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경제장관을 지낸 마크롱은 올랑드 정부의 연속 선상에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의 당선은 한국 정부로서는 프랑스, 나아가 유럽연합(EU)과의 외교 및 교역 등에서 불확실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다.

마크롱은 평소 개방경제, 자유무역의 가치와 함께 유럽연합 잔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프랑스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역설해왔는데, 이런 입장은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등을 놓고 트럼프가 전통적인 한·미 관계의 이익균형을 벗어난 '좌충우돌'성 발언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마크롱의 당선은 극우 포퓰리즘을 차단했다는 면에서도 한국경제와 대외관계에 플러스 요인이다. 마크롱과 결선에서 맞붙었던 마린 르펜은 유럽연합(EU)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보호무역 장벽 건설 등 극단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내걸어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당선인이 5월 7일 밤(현지시간) 파리 루브르박물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
르펜이 당선됐으면
짐 싸서 다른 나라로
떠나야 했을 것”

르펜이 만약 결선에서 마크롱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외교가는 마크롱의 승리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외교 분야에서도 마크롱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등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행태를 비난해온 올랑드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프랑스 대선 후보 중에는 결선에 오른 르펜 외에도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 4위를 한 급진좌파 장뤼크 멜랑송 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친(親) 러시아 성향을 드러내 왔기 때문에, 이들이 집권했다면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의 공조가 난관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 외교소식통은 “마크롱은 유럽연합 잔류와 개방경제 옹호 입장 등 정통적인 입장에 섰던 인물로, 그의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르펜의 반(反)이민자 공약들로 불안해하던 재불 한인사회도 안도하고 있다. 르펜은 당초 내세웠던 이민자 수용 대폭 감축을 넘어서 이민자 수용을 아예 잠정중단(모라토리엄)하겠다고 선언한 데다, 외국인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축소 등 이민자에게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에, 마크롱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내걸고 외국인과 타문화에 관용적인 입장을 내세워왔다. 파리의 한 한국음식점 대표는 “한인사회에서는 ‘르펜이 당선되면 다들 짐 싸서 다른 나라로 가야 할 판’이라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마크롱이 당선돼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

김용래 연합뉴스 파리 특파원

바른 말 고운 말

‘발다’의 의미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날짜의 여유가 없게 결혼 날짜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결혼 날짜를 받게 잡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발다’라는 말은 ‘바’ 밑에 ‘터’ 받침을 쓰는데, 시간이나 공간이 몹시 가깝다는 뜻입니다. 이 ‘발다’라는 말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도 크지 않고 힘도 과히 들이지 않으면서 자주 하는 기침을 ‘발은 기침’이라고 하지요. 또는 ‘발은 숨을 몰아쉬다’는 말도 들을 수 있는데, 여기서 ‘발다’라는 말은 숨결이 가쁘고 급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돈에 발은 사람이야’ 또는 ‘재물에 발은 사람이야’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돈이나 재물을 지나치게 알뜰히 아껴서 인색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발다’가 어떤 것을 즐기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고기에 발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말하면,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는 뜻입니다.

다디달다

우리말에서 형용사의 뜻을 강조할 때 ‘새파랗다’, ‘시퍼렇다’처럼 ‘새-’나 ‘시-’ 같은 접두사를 붙이는 방법도 있지만, 어간을 두 번 겹쳐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디차디’는 ‘차디’란 형용사의 어간인 ‘차-’를 두 번 겹쳐 쓰면서 앞 어간에 ‘-디-’라는 어미를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로 ‘크디크디’, ‘작디작디’ 같은 것도 있지만, 주로 맛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짜디짜 국, 시디신 굴, 맵디매운 고추, 쓰디쓴 약’ 같은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달다는 뜻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면 ‘달디달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달디달다’가 아니라 첫 음절의 ‘르’ 받침이 없는 ‘다디달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매달’ 또는 ‘달마다’라는 뜻으로 쓰는 표현도 역시 ‘달달이’가 아니라 ‘다달이’가 맞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날말 맞추기 _ 퀴즈를 풀며 정확한 표현을 익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5월호 정답

첫	금	강	산	운	동	화
눈	물	아	자	반		랑
고		지	도		강	도
연	기		망	향	심	
구	만	세	수	문	장	
소	식	수	술			엄
	물	개	병	사		동
부	구	명	모	잔	실	
고	사	리	곡	물		한

▶ 오른쪽 방향 열쇠

2. 꽃이 피는 시기를 사색하는 추위
4. 밥을 지을 때 물이 모자라 꼬들꼬들하게 몹시 된 밥
5. 용이 되려다 못 되고 물속에 산다는 전설상의 큰 구렁이
7. 상한 음식물을 먹음으로써 생기는 중독 상태.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9. 여자에게 소용되는 화장품이나 바느질 기구, 패물 따위를 팔러 다니는 사람
11. 서양에서 발달한 그림 기법으로 그려진 수채화나 유화 등을 이르는 말
14. 벗나무의 열매로 크기는 앵두만 하며 맛이 새콤하고 달다
15.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 공교롭게도 어떤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을 이르는 말
17. 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정성을 들이거나 약을 달이는 데 씀
18. 조선 말기에 공무로 급히 다른 지방으로 가는 사람이 타던 말
20. 고향을 그리는 노래
22. 가산(家産)을 다 써서 없애고 몸을 망침

▶ 아래쪽 방향 열쇠

1. 사람의 죽음을 알림, 또는 그런 글
2. 꽃실 끝에 붙어서 꽃가루를 만드는 주머니 모양의 부분
3. 차(車), 마(馬), 포(砲), 쫓(卒) 등을 이용한 놀이
6. 우리나라의 국화(國花)
7. 먹는 물
8. 책을 읽는 것
9. 장(腸)에서 생겨 항문으로 나오는 구린내가 나는 기체
10. 무나 오이, 마늘 따위를 썰어 말려서 간장에 절이고 양념을 하여 묵혀 두고 먹는 반찬
12. 당나라 현종(玄宗)의 비(妃). 아름다운 여인을 ○○갈다고 하죠
13. 흥미 있는 일이나 물건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일
14. 버선만 신은 발. ○○발로 뛰어나와 손을 잡고 난 가위하다
15. 낮잠. 오침(午寢)
16. 이상으로 그리는, 완전하고 평화로운 상상의 세계. 도원경(桃源境)
18. 공무원의 징계 처분의 한 가지.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
19. 조선 시대에 공사(公事)로 지방에 나가는 관원에게 역마(驛馬)를 징발할 수 있는 표로서 주던 패(牌)
21. 가정 살림에 쓰이는 온갖 세간

본고장에서 맛보는 별미 왕갈비, '수원갈비'

전국 최대 우시장이 해방 후 '수원갈비'가 탄생한 배경

경기도의 대표 음식 가운데 하나가 '수원갈비'이다. 수원이 갈비의 본고장이 된 연유는 남쪽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람은 물론 물산이 전국 곳곳에서 집합하고 통과하는 지역인 것이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소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일.

일본강점기에는 전국 3대 우시장이 바로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시장 덕분에 한우갈비를 구하기 쉽고 관련 음식이 탄생해食客들의 사랑을 받게 됐다. 지금의 수원갈비 요리는 해방 직후에 등장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진다. 수원 화성의 팔달문 밖 영동시장에서 화춘제과점을 운영하던 이귀성 씨가 광복 후 업종을 바꿔 '화춘옥(華春屋)'이라는 음식점을 차리면서라는 것. 소갈비에 양념을 넣고 무쳐 만든 양념갈비를 숯불에 구워 팔기 시작했는데 그 맛이 일품이어서 인기가 삼시간에 치솟았다. 수원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그 맛을 보려고 몰려들었다. 화춘옥 방식의 수원갈비는 1985년 4월 수원시 향토음식으로 공식 지정됐다.

수원갈비는 갈비의 크기가 무척 커서 식객을 놀라게 한다. 갈비 1인분(수입산 기준)은 보통 450g. 얇게 펼쳐진 규모가 10×15cm가량 된다. 그중 절반 가까이가 갈비이고 나머지 절반 정



생갈비(좌)와 숯불에 구워지고 있는 양념갈비.

도는 고기이다. 다른 지역의 갈비는 이보다 크게 적어 1인분이 통상 250g이라고 한다. 수원갈비는 예전의 명칭 그대로 푸짐한 '왕갈비'인 것이다.

'생갈비' 담백 vs '양념갈비' 달콤

갈비음식은 양념갈비와 생갈비로 나뉜다. 1인분 갈비 가격은 수원 최대의 갈비 전문식당인 가보정의 경우 국내산이 생갈비(250g 기준) 5만3천 원, 양념갈비 4만2천 원이다. 미국산은 생갈비(450g 기준) 4만 원, 양념갈비 3만4천 원이다. 국내산을

수원 화성

수원 화성(水原 華城)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장안구에 걸쳐 있는 길이 5.52km의 성곽이다. 1963년 사적 3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조선 후기 정조 때인 1794년 착공하여 1796년 10월 10일(음력 9월 10일)에 준공되었다. 기존에 화강암으로 쌓았던 방식을 버리고 벽돌로 쌓는 축성 공사에는 정약용이 고안한 거중기가 사용되었다. 정조가 그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에 옮기면서 축조한 성으로 거중기, 녹로 등 신기재를 사용해 만들어졌다. 화성은 군사적 방어 기능과 상업적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동양 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다





마음껏 먹기엔 아무래도 가격 부담이 좀 크다고 하겠다. 이 때문에 음식점들은 점심시간에 저렴한 메뉴를 만들어 내놓고 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 생갈비와 양념갈비는 화로의 숯불 상태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는가에 따라 맛이 천양지차다. 물론 숯불은 가스 불보다 깊고 은근한 구이 맛을 선사한다. 생갈비는 센 불에 올리되 살짝 구워 얼른 꺼내 먹어야 제맛을 만끽할 수 있단다. 겉모습이 누렇게 익었지만, 속살은 여전히 붉은 상태로 남아 있을 때 먹는 게 고기 맛을 즐기기에 최적이라는 얘기다. 불 위에 너무 오래 두면 육질이 질겨지고 파삭파삭해진다. 그냥 먹어야 고기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지만, 취향에 따라 소금을 살짝 짝어 먹기도 한다.

생갈비가 고소한 맛이려면 양념갈비는 연하면서도 달콤한 게 특징이다. 양념갈비를 제대로 즐기려면 생갈비 조리 때보다 불을 약하게 한 채 천천히, 그리고 은근하게 익혀야 한다. 센 불로 구울 경우 살이 금방 타 버리기 쉽다. 생강, 마늘, 소금 등 양념이 살에 발라진 상태라서 그렇다. 다 익은 고기는 석쇠 위의 갈비뼈에 올려놓고 따끈한 상태에서 하나씩 먹으면 된다. 식은 고기는 맛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수원에서는 해마다 갈비축제가 열려 그 맛과 명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1995년 시작된 수원양념갈비축제는 근래 들어 가을에 개최되는 수원화성문화제 기간에 함께 펼쳐진다. 수원시는 중국과 일본의 자매도시와 손잡고 한·중·일 음식문화축제도 열고 있다. [창](#)

1. 풍성한 상차림. 갈비를 중앙에 두고 갖가지 반찬들이 빙 둘러있다.
2. 소금 양념을 살짝 짝은 갈비. 취향에 따라 갖가지 양념을 발라 먹을 수 있다.
- 3, 4. 갈비의 후식으로 먹는 된장찌개와 냉면.



수원시 여행정보

당일 여행 정보

연무대 → 화성열차 → 서장대 → 화성행궁
관람 → 공방거리 → 재래시장 → 화성박물관
관람 → 통닭거리 → 플라잉 수원

관광안내

수원 관광안내소 031-228-4672
서장대 관광안내소 031-228-2764

대중교통

- 공항리무진(인천공항 1층 7A-수원역-서수원터미널, 소요시간 90분)
- 전철(서울역-수원-천안, 첫차 05시 20분, 배차 10분)
- 광역급행버스 M5107번(서울역-수원시 영통구 경희대학교, 배차 10분)

식당(갈비집) 정보

가보정갈비 031-238-3883
본수원갈비 031-221-8434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

알쏭달쏭 답답한 민원을 코리안넷 재외동포신문고에 똑똑! 노크하세요

코리안넷(www.korean.net)의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신청하는 공간입니다. 코리안넷에 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국내 본인인증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민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신청 분야



재외동포신문고 서비스는 병무, 국세, 국적회복, 건강보험, 영사관련 업무 등 외국국적 재외동포들이 민원을 국문과 영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코리안넷 회원가입 / 로그인
2. 민원신청 - 온라인 신청서에 민원인 정보 입력
3. 하단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국문 또는 영문 작성
4.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서 첨부 찾아보기에서 파일 Upload
5. 제출
6. 민원신청 완료

독자후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거주하는 한국인입니다. 대사관에서 '재외동포의 창'을 발견하고 반가웠습니다. 웹진으로 읽어 볼 수 없는 사정인데 우편으로 받아 볼 수는 없는지요?

한국인의 긍지와 세계 곳곳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활약상이 담긴 동포소식은 제기 다시 힘을 주고 해외 생활의 피로도 덜어줘 활력소가 됩니다. 한 권의 잡지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스태프 분들의 노고에 많은 이들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견은 동포들로부터 현지 생활의 에피소드를 받아 실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행지 소개가 아닌 실생활에서 겪으며 느꼈던 어려움과 고마움, 안타까움과 자부심, 혹은 문화충격으로 인한 소소한 수필 또는 에세이를 실는다면 또 다른 감동이 아닐까요. 큰 나무 밑에는 작고 이름 없는 꽃들과 풀, 거창하지 않은 것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깐요. 감사합니다.

- 이외순(스리랑카)





더 나은 한상, 더 나은 대한민국

The better Hansang,
For better Korea



제16차 세계한상대회

THE 16TH 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HANSANG 2017. 10. 25(수) ~ 27(금) | 창원컨벤션센터

주최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주관 |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경상남도
GYEONGNAM

 창원시

매일경제 · MBN



“이민으로 해 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2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2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